

2020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예술 프로그램 운용과
제주 지역문화 고양

2020. 7. 3 FRI 13:30 메종글래드 제주 제이드홀

가장 순수한 춤과 제주의 자연이 만난다!!

제5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

Jeju International Improvisation Dance Festival 2020

‘생태즉흥’



7월 2(목) - 7월 4(토) 제주돌문화공원 · 조이빌살의예술마을 외

장소 제주돌문화공원 · 조이빌살의예술마을 · 탕고올레스튜디오 · 에코댄스스튜디오

주최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

주관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사무국 ·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운영위원회

협력 제주국제댄스포럼 · **예술감독** 장광열

공연문의 및 워크숍 참가신청_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사무국 02)3674-2210 www.ipap.co.kr

■ 7월 2일(목) 해외무용스타와 함께 하는 즉흥 워크숍 17:00-19:00

장소 제주탕고올레 스튜디오 **강사** 이선아(안무가, 프랑스 르게띠 컴퍼니 단원)

■ 7월 3일(금) 전문무용수들을 위한 즉흥 워크숍 16:00-18:30

장소 에코댄스스튜디오(제주시) **강사** 이미리(네덜란드 Collectief Imprography 리더)

■ 7월 4일(토)

커뮤니티 즉흥 공연 15:00-15:30 **장소** 제주돌문화공원 일원(야외)

출연 무용다방(無用多方)/ 아우라 컴퍼니/ 꿈다락토요문화학교(밤과별이야기)

자연과 함께 하는 즉흥 공연

● 16:00 **제주의 돌과 생태즉흥 공연** (국제협업 & Free Improvisation)

Lee Miri & Tamura Ryo/ Lee Suna & 나무꽃/ 김재덕/ 박일규/ 박연술 & 김효은/ 아트프로젝트보라/
이씨박씨/ 전지예 & 곽고은/ 제주에코댄스/ 한정수

● 17:30 **하늘연못 Water 즉흥**

출연 초청 아티스트 **연주** 박수현(더블베이스)&은숙(소리)&Tamura Ryo

● 21:00 **한 여름밤의 즉흥 캠프** **장소** 조이빌살의예술마을

2020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예술 프로그램 운용과
제주 지역문화 고양**

2020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예술 프로그램 운용과
제주 지역문화 고양**

사회 **장광열** 서울·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13:30~ 13:35	개회사	박인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13:35~ 13:40	인사말	김철웅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
13:40~ 13:50	축사	
13:50~ 14:20	Session 1 예술프로그램 운용과 제주지역문화발전	김태관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
14:20~ 14:50	Session 2 프랑스 마을에서 열리는 예술축제들	토마스 한 Danser Canal Historique 편집위원
14:50~ 15:20	Session 3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환경실천 : 해외사례	장수혜 국제공연예술프로듀서
15:20~ 15:40	휴식	
15:40~ 16:30	토론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박일규 계룡산국제춤축제 GMIDF 예술감독 겸 연출자 이선아 프랑스 르게띠 컴퍼니 단원
16:35~ 17:00	종합토론	



안녕하세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위기로 <2020 제주 국제 댄스포럼> 개최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이 가진 위로와 치유의 힘을 믿기에 어렵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예술 프로그램 운용과 제주 지역문화 고양>을 주제로 3명의 발제자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예술로서 제주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사회를 맡아주신 장광열 서울·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태관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님, 토마스 한 Danser Canal Historique 편집위원님, 장수혜 국제공연예술프로듀서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님, 박일규 계룡산국제춤축제 예술감독님 그리고 이선아 프랑스 르게떼 컴퍼니 단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 19를 고려하여 현장행사와 온라인 이원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으로 이루어지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국제댄스포럼의 김길리, 김철웅, 김태관, 김희숙, 이혜준, 장광열, 전행진 운영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



다시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 무용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더하여 더욱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자는 꿈을 향한 길입니다.

그 꿈은 제주댄스빌리지(Jeju Dance Village)의 완성입니다. 제주댄스빌리지는 무용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담아 지역엔 격조 높은 관광 상품 제공으로 대외 경쟁력을, 도민들에게는 품격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댄스빌리지는 무용의 공연은 물론 연습 및 제작 과정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무용의 '속맛'까지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제주지역 무용 꿈나무를 키우고 도민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용이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만큼 무용을 활용한 치유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댄스빌리지로 나아갈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상가리 문화공간 마루'를 지난해 5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2018년 6월 바로 이 장소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유희시설 등과 무용예술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제주국제댄스포럼을 개최한 지 불과 1년만의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마루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관과 함께 6월 제주도민을 위한 무용 정규프로그램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춤 명상·성인발레·어린이 발레·K-Pop 댄스·실버세대 무용·흥겨운 플라멩고 등 어린이에서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선 초·중학생 발레, 중학생~성인 한국무용, 고교생~성인 현대무용 등 제주 여름 무용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전국 영재수준의 교육생 유치를 통해 상가리 문화공간이 전국적 무용 명소로 이름을 알린은 물론 교육생 가족 등의 동반 내도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에 무용창작환경 개선, 10월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주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화두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며 콘텐츠 활성화와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힘겹습니다. 꿈을 더욱 키우고 조금 더 다가가고 싶었는데 코로나19가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지구촌의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 제주 국제 댄스포럼 개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작을지라도 한 걸음 더 꿈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우리 기성세대의 보람이자 미래 세대의 희망입니다.

이 모두 제주 국제 댄스포럼을 시작하시고 문화공간 마루도 마련하신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박인자 이사장님의 혜안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가족과 함께 제주댄스빌리지의 꿈을 향한 여정을 같이하고 있는 장광열·이해준 교수님, 아리랑국제방송 진행진 PD님에게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제주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댄스빌리지의 예술 프로그램 운용과 제주지역 문화 고양을 위한 고견을 나누고 제주댄스빌리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도민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

김철웅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갑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2020 제주 국제 댄스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제주댄스빌리지 김철웅 추진위원장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박인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댄스포럼에 참석하시어 행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모든 분께도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일상에서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특히 무용은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예술 분야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춤은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뇌의 퇴화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춤을 추면 뇌가 활성화되고 감정이 활발해지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춤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활동입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방식이 필요한 시기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굳건히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제주를 발전시키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주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 제주 국제 댄스포럼을 개최하신 노력에 존경을 보냅니다. 준비하신 알찬 행사들이 제주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제주를 빛내는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2020 제주 국제 댄스포럼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송재호

2020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발제 I

예술프로그램 운용과 제주지역문화발전

발제자



김태관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감사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부회장
제민일보 칼럼니스트

(전)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기획자
제주관광대학교 초빙교수
제주한라대학교 강사
제주대학교 강사
제주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부 연구원

제주대학교(관악 전공) 학사(음악학)
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 전공) 석사(경영학)
추계예술대학교(문화예술행정경영 전공) 박사(문화예술학)

예술프로그램 운용과 제주지역문화발전

김태관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

I. 서론 : 코로나 시대 문화정책 흐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국가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특성이자 근본인 대면예술 활동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로 전 세계의 문화예술계가 긴장 상태에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공립 공연장 및 관련 단체들은 대면 공연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한편, 예정됐던 오프라인 공연도 취소하는 추세임. 반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축제이자 올해 100주년 되는 잘츠부르크음악축제는 무대와 객석에서 거리두기 시행하면서 진행한다고 결정. 이번 결정은 그동안 개최를 놓고 눈치를 보던 영국 BBC프롬스 등 다른 유럽 축제들의 개최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4월에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장관 화상 회의가 전 세계 120개국에서 참여하여 진행됨. '코로나19 확산이 문화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미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소비가 감소하고, 공연, 전시, 영화 제작이 연기·취소돼 관련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문화예술정책은 창작과 소비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향유하면서 문화예술 환경이 온라인 콘텐츠산업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함.

II. 본론 : 제주의 문화환경 및 예술프로그램 사례

2-1. 제주 문화환경 변화

가. 문화예술 활동인구

제주도 인구는 2019년 현재 약68만명으로 이중 제주시에 5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제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은 약1500만명으로 추정. 제주지역 유입인구를 보면 2013년 부터는 7,823명으로 치솟음. 그러나, 2019년 가을부터 도내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음. 제주 전입자 수는 9만 5000명, 전출자 수는 9만 2000명¹⁾으로 집계됨.

나. 전국문화예술활동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2016년 제주지역 문화예술활동 건수²⁾는 855건으로 2015년 688건에 비해 24.3%나 확대됨.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133.3건으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서울(124.4건), 강원(93.1건), 광주(87.4건), 대구(87.1건),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66.4건으로 제주가 문화예술 활동의 핫 플레이스로 등장함.

<표 :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지역	제주	서울	강원	광주	대구	전북	부산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세종	충남	충북	평균
활동 건수	133	124	93	84	87	79	74	65	60	54	50	49	45	43	66

2-2. 제주의 문화정책 주요과제

가. 지역문화 연계 제주브랜드이벤트 발굴 육성

제주에는 약45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3600여회의 공연전시활동이 개최되고 있으나, 수많은 예술활동 중에 제주를 대표하거나 브랜딩 하는 공연이나 전시이벤트는 전무함.

나. 공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민문화향유 확대

제주에는 약270명의 공립예술단 5개 단체에 매해 약12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민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운영을 전담할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통합사무국이 필요함.

다. 문화공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문화인프라 구축

제주도내 국공립전문공연장은 공무원 순환근무로 전문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현실임. ==> 전문가를 활용한 극장 운영방식의 변화(공무원 운영에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법인화로 변화)를 통해 회원제 효율적 운영,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인프라 확대,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 및 개발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교육실, 강의실, 갤러리, 카페나 레스토랑 등 시설 확충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함.

라. 청소년부터 실버세대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도 매해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축제를 진행하면서 예술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도내 공립문화공간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 호남지방통계청 : '2019년 호남·제주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2017문예연감'

2-3.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례

가. 문화도시(음악창의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그램

중앙정부는 2004년에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면서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간의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선정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최근 음악분야에도 대구시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됨. 예술활동 중에 제주를 대표하거나 브랜딩 하는 공연이나 전시이벤트는 전무함.

나. 공연장 상주단체 프로그램

방향 :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재설계, 장기 지원(최소 2년)으로 지역 공연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 및 역량 강화. 지역 소재 민간 공연단체에게 상주공간(무대, 연습실, 사무실 등)을 제공하여, 공연 및 타 분야·장르 융복합 작품 제작, 발표 및 레퍼토리화 유도

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서귀포예술의전당의 다문화합창단 교육프로그램은 개관 직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서귀포에 정착한 성인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도내 합창경연대회와 음악축제에 참여하면서 문화공간의 단순 문화예술교육을 넘어서 합창을 통한 문화네트워크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봉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제주아트센터에서는 개관 후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 성인대상의 이주민합창단과 청소년대상의 뮤지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뮤지컬교육은 올해 2년차 밖에 안된 프로그램이지만, 2019년 가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서 심화과정에 선정되었고 지난달 전국문화예술교육축제 성과발표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라. 국내외 공연예술축제 사례

- A. 에딘버러페스티벌 (1947년)
- B. 베로나오페라축제 (1913년)
- C. 쾰른부르크음악축제 (1920년)
- D. 바이로이트음악제 (1876년)
- E. 국내주요음악축제 : 대구국제오페라축제 2003년 / 통영국제음악제 2002년 / 대관령 국제음악제 2004년

==> 성공사례 공통점 : 예술가 창작활성화를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제도 도입,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미래의 음악애호가이자 관객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자원봉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 수준 높은 음악연주와 외국과의 음악적 소통을 위한 상주 연주단체를 통한 국내·외로 축제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 등.

마. 제주의 공연예술축제 사례

1) 제주브랜드 문화상품 제주국제관악제

1995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축제와 관악콩쿠르를 동시에 진행하는 유일한 관악전문 음악축제이다. 문화관광부의 평가 자료에 의하면, 제주국제관악제는 독특한 프로그램의 유치와 수준 높은 국내외 연주단의 공연을 통해 흥미 있는 진행과 구성 등의 요인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관악전문 공연장, 수준 높고 다양한 출연진, 제주문화와 접목한 창의적 프로그램, 시민참여를 확대한 자원봉사 운영시스템, 행정과 민간전문가의 거버넌스 운영조직, 체계화된 운영 집행 시스템 등은 미완의 숙제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2) 해비치아트페스티벌

국내 문예회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스전시와 쇼케이스 개최 등을 통한 공연유통 활성화, 한국 공연 문화발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임. 전국 문예회관 관계자, 국내외 예술단체 및 공연기획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 공연장 관련 장비업체 등을 비롯한 일반인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축제임. 많은 문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A. 기획제작 작품이 나와야한다. :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기반, 도내외 캐스팅
- B. 아트마켓 활성화 : 제주의 작품도 육지로 왕래 거래
- C. 작품선정시 공정 : 지역에 맞는 적합, 적절한
- D. 프린지 공연 활성화 : 공연에 규제 두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

3) 제주 역사문화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공연예술작품

- A. 제주 최초 창작뮤지컬 자청비
- B. 제주시립예술단을 활용한 제주창작오페라 백록담
- C. 민속뮤지컬 '애랑이 보러 옵데가'
- D. 제주문화콘텐츠 육성사업 창작오페라 "라(애랑&배비장)"

4) 다양한 제주의 춤 관련 축제들

춤(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은 대중성과 전문성을 내포한 무한한 고급 문화예술 콘텐츠로, 제주의 자연환경과 너무 잘 맞는 춤의 특성인 다양성, 자유로움, 창의성 그 자체임. 이러한 춤의 장점을 살린 춤과 제주의 자연, 생태, 관광, 힐링 콘텐츠를 접목한 문화상품의 제작과 육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제주춤(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작업 : 교육기관설립(국립), 학생수급(외국에서 올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제주지부), 적합한 공연공간과 운영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행정의 의지와,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조합되어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적극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이사장과 추진위원들의 열정이 지역에서 신뢰를 받음.

5) 연극 해녀의 부엌 :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민과 예술가 연합 프로젝트

해녀의 부엌은 제주 해녀와 청년 예술인이 함께 만든 콘텐츠로 지역 페어판장 공간을 활용한 공연무대와 다이닝, 해녀의 삶을 다룬 연극, 프로젝션맵핑 공연 등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문화자원인 해녀와

해녀문화를 융복합한 지역 혁신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체험문화여행상품인 '해녀의 부엌' 이 대표 혁신 벤처사업 사례로 선정됐다." (2020.6.4. 제민일보)

해녀 어머들과 그 딸이 빚어낸 종달리 바닷가의 기적 : 성산 일출봉이 바라다보이는 바닷가, '해녀의 부엌'은 창고로 방치됐던 활선어 위판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 겸 식당으로 바꾼 공간이다. 또, 해녀들이 직접 풀어놓는 연극이자 이야기 공연의 제목이며, 이 마을에서 태어나 한예종에서 연기를 배운 김하원(29) 대표와 서른 살 안팎 청년 예술가 10명이 꾸려가는 스타트업 이름이기도 하다. 제주 바다 해산물 식사를 엮어낸 두 시간짜리 공연으로 작년 3월 정식 오픈 뒤 벌써 1만 500여 명이 다녀간 '해녀의 부엌'은 30년 전 문을 닫은 종달리 어판장은 어업인이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방치되다가 지난해 1월 '해녀의 부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녀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연극 뒤 해녀들이 직접 캐온 종달리 바다 해산물로 차려내는 식사는 '해녀의 부엌' 공연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다. 툇밥, 군소 샐러드, 우뭇가사리 무침, 뽕소라 꼬치, 뽕소라 회, 전복 물회에 갈치조림까지 풍성하다. 관객들은 밥 먹는 동안 해녀 할머니에게 궁금한 것을 적어 내고, 해산물 구매 신청서도 함께 쓴다.

종달리 김태민(64) 어촌계장이 말했다. "부둣가 주차장에 꽂 찬 렌터카를 보며 주변 마을 사람들이 '떼돈 벌겠다'며 부러워해요. 그러면 그냥 '허허' 웃어주죠. 십수년 내 해녀 어머들은 나이 들고 어촌은 기능을 잃을지도 몰라요. 해산물도 팔아주고 해녀들을 고용하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해녀의 부엌'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III. 결론 : 예술프로그램 운용을 통한 제주지역문화발전

3-1. 예술프로그램 및 문화축제 활성화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공연중심의 문화관광산업 및 세계 유수의 음악축제나 제주국제관악제와 같은 문화상품의 개발과 육성 필요함. 이는 향후 제주의 미래산업이 될 수 있음. 세계적인 음악축제들은 성공한 축제 하나만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세계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들은 예술자체를 넘어서 문화, 사회, 지역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문화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임.

3-2.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특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부와 지역 문화정책을 충족시키는 제주시 상가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댄스빌리지 조성사업은 문화정책 다양성의 측면과, 서울과 제주 네트워크, 춤을 좋아하는 제주사람의 특징 등이 어울린 제주에 매우 적합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제주를 사랑하는 서울사람들의 마음과 열정, 상가리 주민들의 열린 마인드가 잘 조합된 프로그램이자 미래지향적 공연예술 프로젝트이다. ==>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지역과 융합하여 특화하여 지역을 브랜드하는 문화예술상품으로 육성 개발하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유연한 문화정책으로 예술지원책을 추진해야 함.

제주시 동쪽 마을 종달리 어촌계 해녀와 청년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낸 연극 “해녀의 부엌”은 예술가와 지역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만들어낸 종합예술이다. 창고로 방치됐던 활선어 위판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 겸 식당으로 바꾼 공간에서 실제 해당 지역의 해녀와 그들이 잡아올린 해산물을 소재로 음식을 만들면서 지역 특산물인 해산물도 판매하는 창의로운 프로젝트이다. 예술을 통해 지역과 공존하는 이 프로젝트는 해녀문화와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예술가와 종달리 해녀들을 응원한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2020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발제 II

프랑스 마을에서 열리는 예술 축제들

발제자



토마스 한 Thomas Hahn

Danser Canal Historique 편집위원
Tantz 프랑스 통신원
Theatre de la Ville 무용 프로그램 작가

무용평론가
무용 프로그램 및 페스티벌 작가, 모더레이터, 강사
파리 공연 예술 관련 프랑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전) 프랑스 월간 무용지 Les Saisons de la danse 기고
프랑스 월간 무용지 Danser 기고

프랑스 마을에서 열리는 예술 축제들

토마스 한
Thomas Hahn

Danser Canal Historique 편집위원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서로 매우 다른 다섯 개의 페스티벌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각 국가 경제에서 문화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국가 경제에서 문화창조산업(이하 CCI: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료의 출처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저는 오늘 국가 간 비교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창조산업의 국내총생산(이하 GDP) 기여도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약3%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CCI 산업은 2018년 기준 910억 유로, 즉 GDP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서적, 영화, 디자인, 건축 등의 분야에서 6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예술이 약 90억 유로로 전체 CCI 산업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CCI 산업의 규모는 GDP의 3%인 1천억 유로의 규모이지만, 독일의 GDP는 4조 유로, 프랑스의 GDP는 3조 유로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두 국가에서의 CCI 산업 규모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기관마다 용어의 정의, 활용하는 통계 기법 등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절대 수치로만 보아서는 비슷한 범위에 해당하지만, 음악 산업에 BTS(와 같은 그룹들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공연예술 비중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숫자들만으로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없지만,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 보면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GDP 기여도는 CCI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은 GDP 기준 CCI 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2020년은 공연예술계에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만 해도 4000건 이상의 문화행사들이 취소되었고, Montpellier University(몽펠리에 대학교)에서는 약 50억 유로 정도의 손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Festival D'Avignon (아비뇽 페스티벌) :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페스티벌: 74년의 역사

매년 7월에는, 안타깝게도 2020년만 제외하고, 아비뇽 시는 자칭 <세계에서 가장 큰 극장>이 됩니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약 1,600 편의 공연이 진행되며, 그 중 약 40편은 공식적으로 초청된 'Festival In' 프로그램입니다. 총 140여 곳의 무대가 제공되며 무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약 1,600편의 공연이 'Festival Off' 프로그램으로 공연되며 그 중 7%는 무용, 3%는 서커스 공연입니다.

Off 프로그램 공연은 매년 100편 이상씩 지속적으로 참가작품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새로운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이 좋은가? 끊임없는 성장은 작품의 품질이 아닌 편 수를 추구하게 합니다.

Avignon Festival(아비뇽 페스티벌)에는 매년 15만~ 20만명이 참가합니다. 물론 Avignon Festival이 세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은 아닙니다: 3,800편의 공연이 진행되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에는 40만명 이상이 참가하며 Fringe Festival(프린지 페스티벌)에는 연간 3백만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에딘버러의 규모가 아비뇽 보다 5배 이상 크다는 점입니다: 에딘버러 인구는 48만 명, 아비뇽 인구는 9만 명입니다.

2015년, 아비뇽 상공회의소는 페스티벌에 의한 지역 경제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4천5백만 유로의 직접지출 규모는 페스티벌의 유명세 대비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페스티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축제 기간은 3주입니다. 왜냐하면 페스티벌 기간을 연장하려면 더 많은 극단을 초대해야 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페스티벌 주최측에서는 2차 지출, 즉 관람객의 지출을 포함하여 In 프로그램에서 2천 5백만 유로, Off 프로그램에서는 1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출은 호텔, AirBnB, 음식점, 상점, 교통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프랑스 철도청에서는 총 6백만 유로 규모의 승차권을 판매합니다.

아비뇽시의 상점들은 연매출의 20%를 3주 간의 페스티벌 기간에 달성합니다! 3주라면 년의 6%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즉, 아비뇽에는 연중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들지만, 특히 페스티벌 기간에는 매출 이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Avignon Festival 관람객의 33%는 지역 주민, 26%는 파리근교 주민, 27%는 프랑스 내 타지역 주민이며, 14%는 해외 관람객입니다. In 프로그램의 티켓 판매율은 약 95%입니다.

페스티벌 예산규모는 1천 3백만 유로이며 그 중 57%는 지원금(43% 중앙정부, 14% 지역정부)이며, 3%는 티켓판매, 스폰서 등을 통해 달성됩니다.

즉, 7백 5십만 유로의 자금으로 1억 2천 5백만 유로의 수입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수익입니다. 정부가 지출한 1 유로가 2차 지출을 포함해서 볼 때 16유로의 시정부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1 유로의 지원금에 6.5 - 7.0 유로의 수익(숙박, 식음료, 쇼핑)을 창출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Avignon Festival을 매년 즐기는 관람객이 더 많이 지출해야 할까요? 혹은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할까요?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호텔, Air BnB, 음식점의 가격이 치솟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비뇽 시는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고, 연중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비뇽은 이제 단순히 교황의 유배지, 페스티벌의 도시가 아니라 근대화된 도시로서 인식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Montpellier Danse (몽펠리에 당스)

프랑스에서는 약 100건의 무용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Avignon Festival이 모든 공연예술 전체 분야에서 국제적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 17%라는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무용 페스티벌은 주로 지역 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랑스 내 다른 지역 혹은 외국에서 방문하는 관람객은 전문 무용수들이 주를 이룹니다.

Montpellier Danse는 Avignon Festival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남부에서 개최됩니다. 7월 초, Montpellier Festival이 끝나면 Avignon Festival이 시작됩니다.

Montpellier Danse는 40년을 자랑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무용 페스티벌입니다.

제 1회 Montpellier Danse가 개최된 1981년 이전까지 Montpellier는 여름에는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였습니다. 별명이 << Sleeping Beauty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습니다.

현재 Montpellier는 문화를 성장의 동력으로 선택한 후 연중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악 페스티벌, 연극 페스티벌, 무용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모든 페스티벌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근대적이고 개방적이며 활기가 넘치며 다채롭고 역동적인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Montpellier Danse는 또한 연중 무용공연의 프로그램 편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Montpellier 에는 작품을 창작하는 CCN (국립안무센터)도 있습니다.

오래 된 수도원을 개조하여 특별히 마련된 무용센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화를 공공 서비스로, 공화정의 기둥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Montpellier Danse와 같이 큰 규모의 행사 이외에는 필요한 자금을 기꺼이 지출하고자 하는 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심, 관람객, 여행객을 희망하는 지역 내 도시들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Montpellier Danse와 거의 모든 프랑스의 무용페스티벌에는 극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관람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Festival D'Avignon의 (In)프로그램처럼 입장권의 95% 이상이 판매됩니다. 인구 23만명의 Montpellier는 3만 5천장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페스티벌은 물론 예술철학에 의해서도 정의되지만, 관람객에 의해서도 정의됩니다.

Montpellier Danse의 관람객은 88%가 지역주민으로 75%가 Montpellier 시민이며, 7%가 해외 관람객(주로 전문 무용수)입니다. 즉, Montpellier Danse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 페스티벌입니다.

Suresnes Cites Danse (쉬렌 시떼 당스)

Suresnes Cités Danse Festival의 감독 겸 설립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무용 페스티벌이 아니라 힙합 페스티벌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Suresnes Cités Danse는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대표주자로 시작하였고 수백명의 브레이크댄서를 고용하였으며 페스티벌 주최 측 연출작품에 수천명이 캐스팅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프랑스에는 이렇게 페스티벌 설립자들도 놀라게 한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쉬렌은 파리 근교의 부유한 도시로 사무직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대도시 주변에는 부유하지 못한 거주지역이 많고, 바로 그런 지역에서 1980년대 부터 프랑스 내 스트리트 댄스가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쉬렌은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쉬렌에서 스트리트 댄스에 기반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대로, 쉬렌은 부유한 지역이고, 그렇기에 페스티벌로 인해 도시의 경제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 쉬렌은 평범한 경마장(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극장에 가까운 곳에 있는)보다 힙합댄스로 더 유명합니다.

Suresnes Cités Danse 페스티벌은 1993년 국내 및 국제 힙합컴퍼니를 초청한 두개의 프랑스 페스티벌 중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b-boys를 기존의 극장 무대에 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Suresnes Cités Danse 관람객 수는 초기 5천명에서 1만 7천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별 이벤트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해도 있기에, 페스티벌 예산의 범위는 50만 유로에서 80만 유로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Suresnes Cités Danse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의 미술감독과 쉬렌 시장 사이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우정 덕분에 Montpellier Danse와 같이 무용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감독과 시장 사이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페스티벌의 성공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lateforme Danse & Dissidanse, Corsica (플랫폼 댄스 & 디시댄스, 코르시카)

Plateforme Danse는 코르시카 아작시오의 무용단 Art'Mouv이 2005년 설립하였습니다.

Plateforme Danse는 프랑스령 섬인 코르시카에서 개최되는 현대무용 페스티벌입니다.

코르시카는 산지가 없는 큰 섬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파리의 프랑스 정부와는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르시카에는 무용단이 3개뿐이며, 본토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어서 다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정부의 지원 하에 프랑스 내 무용 네트워크로의 통합이 현재 개선 중입니다.

Art' Mouv 무용단은 «Plateforme Danse» 라는 페스티벌을 설립하여 다른 지역, 국가의 무용단과의 교류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의 페스티벌입니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은 2018년부터입니다. Art'Mouv 무용단은 재정지원이 더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Dissidanse Lalala라는 공유구조 및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NCC(국립안무센터) 개발팀(development)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rt'Mouv 프랑스와 해외에서 전속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무용단은 프랑스NCC(국립안무센터)에서 전속 자격을 확보하였습니다. 프랑스 및 해외 무용단을 초청하여 코르시카의 풍경, 산과 대화하는 공연을 창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구조를 기반으로 지중해의 다른 섬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페스티벌인 Dissidanse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Dissidanse가 성공적인 페스티벌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초기입니다. 아직은 정체상태이며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더 면밀하고 강력하게 페스티벌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오에롤 (Oerol)

Oerol 페스티벌은 특정 장소에서의 공연(site specific performance)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북해의 테르스헬링섬에서 개최됩니다. 테르스헬링섬은 배를 타야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페스티벌은 1982년 처음 설립되었고 연극에 관련된 소규모의 행사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상당수의 관람객들은, 아직 캠핑이나 호텔이 개발되지 않았기에, 섬 내 마을의 집에서 숙박했습니다. 섬 주민의 수가 5천명인데,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하여 5만명에 가까운 수가 되었습니다. 어업과 농업에 이어 문화가 섬 경제의 세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술 컨셉이 점점 더 변화하여 주변 경관을 공연을 위한 자연적인 무대(site)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무대(sites)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으며, 그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일반적인 무용 페스티벌 보다는 야외 공연 및 설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Oerol 페스티벌은 유럽의 최대 특정장소공연(site-specific performances)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주로 콘서트 때에 연단이 있는 무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Oerol 페스티벌이 매우 독특한, 유럽의 최대 특정장소 공연 행사인 것도 사실입니다.

페스티벌의 컨셉은 섬 전체가 무대라는 것입니다. 관람객은 한 공연에서 다음 공연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Oerol festival은,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다른 페스티벌 보다 소규모이지만, 유럽 내에서 유명한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의 컨셉은 인간과 자연의 대화 및 느린 터득(osmosis)에 기초합니다.

결론

페스티벌은 개최하는 도시 혹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경제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놀라게 하여 공감하는 컨셉을 마련해야 합니다.

페스티벌 크리에이터의 비전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으로도 페스티벌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새로운 페스티벌은 해당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전부터 많은 토론과 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020 국제 심포지엄

2020 International Symposium

발제 III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환경실천 : 해외사례

발제자



장수혜

국제공연예술프로듀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에스터채 희곡집 <그리하여 화살은 날아가고> 역자
2020 DDP 오픈큐레이팅 <책누나프로젝트:작지만 큰 이야기>
전시 총괄 기획
2017-19 <서울세계무용축제>, <HOTPOT 동아시아 무용플랫폼>
국제교류 PD
2016 <시애틀국제무용축제>, 2015 <서울즉흥춤축제> 해외팀장

동국대학교 공연예술학, 영어통번역학 학사
시애틀대학교대학원 예술경영 석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환경실천 : 해외사례

장수혜

국제공연예술프로듀서

1.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의 위기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포스트 코로나19, 또 다른 위기 기후변화

- 현실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세트를 제작하고, 좋은 장소를 필요로 하며, 리허설을 위해 최대한 공간이 필요하고, 화려한 조명과 효과를 위한 전기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재료의 무대의상과 소품, 최대한 잘 만들어진 각종 브로셔와 티켓을 제작하며 투어와 이동을 계속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에는 불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기후변화의 위협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 전 지구적 기온 상승과 기상이변 발생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 시기, 분포 지역, 그리고 강도의 변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문화예술은 '멈춤'보다 더 큰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존재로서 변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전 세계에는 이 문제에 따라 지속적인 문화예술계를 위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무용부문에서 창의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해외사례

(1) 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미국 시애틀아트뮤지엄 ‘조각된 무용 (Sculptured Dance)’

미국의 경우, 오스틴, 워싱턴, 보스턴, 차타누가, 덴버, 미네아폴리스, 포틀랜드, 산타모니카 등의 지방정부가 주정부 보다 앞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주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land-use planning), 교통(transportation), 환경오염예방(pollution prevention), 에너지(energy and resource conservation)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애틀아트뮤지엄(Seattle Art Museum)은 브라운필드(Brown Field: 환경 활동이 미미하거나 폐쇄된 산업 지역. 일반적으로 환경 오염 때문에 재개발이나 산업 지역 확장 등의 도시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를 도시생태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 올림픽조각공원을 조성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축과정부터 해안선과 주변 조경, 도로와의 상호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조각공원에 위치한 안내센터의 커미션 작품 또한 자연조명과 조경을 고려한 작품을 만드는 시각예술작가 Spencer Finch 에게 맡기어 시애틀아트뮤지엄의 자연친화적 브랜딩을 다시 한번 각인 시켰다. 이 외에도 작가들에게 계속하여 ‘환경’을 주제로 한 커미션제작을 의뢰하며 예술과 환경의 상호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뮤지엄의 실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다.

- 올림픽조각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해안의 연어를 보호하기 위한 토지관리 기준을 맞춘다.
- 해안가의 쓰레기 청소를 위해 정기적인 자원봉사그룹을 운영한다.
- 경영 및 행정과정에서 (전기, 물, 인쇄 및 재활용) 자원을 절약한다.
- 나무와 잔디관리를 위해 무농약제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청소용품을 사용한다.
- 관람객들을 위해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 물절약을 위해 스마트관개시스템을 사용한다.
- 관람객과 직원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카풀을 장려한다.
- 예술과 환경의 관계를 탐험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시애틀 아쿠아리움과의 파트너십으로 해안이 썩을 때 해안 청소봉사단체를 운영한다.

예술과 환경의 관계를 탐험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획된 **조각된 무용(Sculptured Dance)**은 지역의 안무가 및 무용예술가들과의 협력으로 조각공원의 장소특정적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선보이는 여름 시즌프로그램이다. 조각된 무용 프로그램은 2016년 유료관객이 많은 것에 비해 젊고 새로운 예술을 원하는 다양한 관객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애틀지역의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Pacific Northwest Ballet)에서 지속가능한 무용의 생태계를 위한 뮤지엄에 제안을 해 왔고, 뮤지엄은 새로운 조성지를 역동적으로 홍보하고 예술과 환경의 상관성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협력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발레단과 뮤지엄은 기관 대 기관의 협력이 아닌 예술생태계를 위한 협력을 이루고자 올림픽 조각공원 곳곳의 조각 작품 앞에서 타 장르의 안무가와 무용수가 발레단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발레단의 무용수, 현대무용단의 안무가가 짝을 이룬다거나, 힙합 안무가가 발레단 무용수와 함께 장소특정적 작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도모하였고, 각 그룹은 공원에서 두 달간의 연습과정을 거쳐 무료공연을 펼친다. 2016년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4000명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2017년에는 예술가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객을 위한 접근성을 증진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더하는 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뮤지엄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누린 사례이다.

(2) 환경을 위한 실천을 통한 영향력: 이스라엘 버티고 댄스컴퍼니 ‘에코아트빌리지’

이스라엘의 현대 무용단 버티고 댄스컴퍼니(Vertigo Dance Company)는 무용단의 운영에 있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천을 선보이며 그 실천을 배경으로 예술작품을 접근하고 있는 무용단이다.

2007년 버티고 댄스컴퍼니의 예술감독 아디 샤알(Adi Sha'al)과 노아 워타암(Noa Wertheim)이 설립한 버티고 에코아트 빌리지(Vertigo Eco-Art Village)는 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예술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 모델을 홍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학습 센터이며 무용단의 창작센터이다. 예술적, 환경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예술단체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가적,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스튜디오는 재활용된 목재와 지역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개조된 닭장을 재건축한 곳으로 스튜디오 전체를 흙으로 지었다.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 또 다양한 워크숍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예술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환경과 예술을 접목하여 교육하는 아마다 예술학과 환경교육센터(Adamah Center for Art Studies and Environmental Education)를 운영 중이다.

버티고 댄스컴퍼니의 환경적 실천은 무용단의 안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바체바 무용단의 영향이 매우 큰 이스라엘에서 단체만의 고유성을 지니기가 쉽지 않던 중 버티고 댄스컴퍼니의 사회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무용단의 작품을 더욱 유기적이고 뿌리깊게 만들어왔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예술감독 노아 워타암의 작품 <피닉스의 탄생, Birth of the Phoenix> (2004)은 흙에서 영감을 받아 극장공간이 아닌 원형야외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댄서들이 빙글빙글 돌고, 도약하고, 구를 때 흙은 공중으로 날아가 의상들에 달라붙는다. 흙은 세트, 소품, 의상, 그리고 또 다른 연주자가 된다. 이 외에도 작품에서 물을 소재로 한다거나 플라스틱을 소재로 하여 관객들에게 환경과 예술의 연계성을 일깨워주고 공연 전, 후, 또는 스튜디오 방문 시, 자연친화적인 설거지 법을 교육하고, 직접 재배한 재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생태체험의 효과를 더 하고 있다. 무용단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 무용의 디지털화에 따라 기술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무용기술혁신센터(The Center for Innovation in Dance Technologies)를 세웠고,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3) 문화예술의 환경실천을 위한 연구와 네트워크,

영국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와 ‘스테이징 체인지(Staging Change)’

한국과 동시에 2008년 영국에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이 제정되었고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0% 줄이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 후, 영국예술위원회는 그들의 주요 지원금수

혜기관에 대한 지원금지기준에 환경부문을 추가했다. 즉, 영국 전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연간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측정해야 하며 환경 정책을 따르고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동시에 등장한 줄리의 자전거(Julie's Bicycle)는 문화예술이 기후변화와 환경에 따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런던기반의 자선단체다. 이 단체는 문화예술이 환경적 실천을 통해 관객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과 기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각 문화예술단체가 행사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The Creative Green Tools)를 제공하여 2,000개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환경인증제인 크리에이티브 그린 (Creative Green)마크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산업 내에 지속가능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역할을 하고 있다. 단체에서 10년넘게 내놓은 연구자료와 각 예술단체와 장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전역에서 유용한 씽크탱크로 작용하고 있다.

스테이징 체인지 (Staging Change)는 2019년 23세 런던의 사운드디자이너인 Alice Boyd가 설립하였고 기후변화를 위한 공연예술단체의 네트워크로 축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젊은 공연예술종사자들이 협력하고 행동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공연예술계의 기후변화를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파하고 있다. 2019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스테이징체인지 어워드(Staging Change Award)를 발표하여 참가 작품 중 가장 환경보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에 상을 주고, 축제 곳곳에서 인터뷰와 연구조사를 통해 야외축제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런던의 공연예술 및 서커스, 코미디, 카바레 축제인 발트 페스티벌(Vault Festival)과 협력하여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참가단체에게 지속가능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역할을 했다.

3.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실천

위 사례들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관행을 개선하며 관점을 달리 함으로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들이다.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미래세대'다. 전 지구적으로 건강한 미래의 지구와 후손들을 위한 현재 우리의 실천이다. 그러나 '생태'를 배경으로 세련된 작품이나 건물을 옮긴다거나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이 이유없이 소비되는 경우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라는 오해가 있다.

지속가능한 노력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공연장들의 세트는 대부분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무대스텝들이 무대장치와 소품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왔고 한 때, 인터넷 플랫폼을 개설하는 등 작은 노력이 있었지만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려면 스텝들뿐 아니라 예술가와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문화예술의 환경적 실천이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문화예술은 특히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의 실천에서 지속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 고민이 얼마나 부재한가 의문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전 지구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밝혀졌듯, 문화예술은 사회와 주변의 환경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사회와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관객들은 점점 더 환경에 대해 감수성이 높아졌고,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의 행동으로 리더십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2012년 Buckinghamshire New University와 A Greener Festival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축제 참가자의 43%가 축제에서 만난 녹색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따라 행동하는 예술 단체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가 그들의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기를 원하는 관객들과 함께 더 긍정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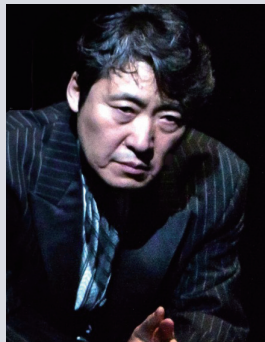
발제자는 공연기획자로서 함께 일하는 예술가들과 단체들에게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무엇부터 변화할 수 있을 지 실험해보고자 연구 중이다. 특히 기록, 리허설, 제작, 투어, 홍보 및 마케팅 등의 과정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비효율적인 소비를 줄이는 실천으로 시작해 보고자 한다. 단체의 해외에는 예술과 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와 각종 자료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작은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파트너를 찾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

토론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
일반동산문화재감정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원
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강사



박일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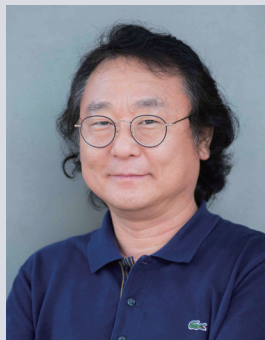
계룡산 국제 춤 축제 GMIDF 예술감독 겸 연출자
국립국악원 <현의 노래>, <세종신악> 안무
동량댄스앙상블 창단
1994 세계무용연맹 창립 부회장
1992 춤의 해 기획추진실장



이선아

재불 안무가
프랑스 르게띠(Cie Le Guetteur) 컴퍼니 단원
스페인 마스단자 안무 경연대회 솔로 부문 2위
요코하마댄스컬렉션 "젊은 안무가를 위한 프랑스 대사관상"

사회



장광열

서울·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춤비평가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

2020 제주 국제 댄스포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인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운영위원

김길리 제주씨티발레 단장, (사)한국발레협회 제주지회장

김철웅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

김태관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

김희숙 제주춤아카데미 대표, 전 제주도립무용단 상임안무가

이해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무용예술학과 교수

장광열 무용평론가, 서울·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전행진 아리랑TV 편성센터장

제주 발레 영재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2020. 7. 4 SAT 13:00 - 21:00

제주 문화공간 마루

개요

일정 2020년 7월 4일(토) 13:00 - 21:00
장소 제주 문화공간 마루
대상 초등 4학년 - 고등 3학년 *경력 2년 이상 발레 전공생
정원 12명 선착순 마감

신청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ejumaru@dcdcenter.or.kr)
※ 이메일 제목 : '마스터클래스 / 참가자 성함 / 나이 / 연락처 / 개인 바리에이션(O/X) - 음악첨부필수'
신청기간 2020년 6월 2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문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070-7789-6202

강사소개



이상민

2016 페름 아라베스크 국제 콩쿨 은상
2016 바가노바 콩쿨 금상
2017 모스크바 국제 콩쿨 디플로마 수상
2018 YAGP 파드되 부문 1등, 솔로 부문 2등
2018 잭슨 콩쿨(usaibc) 빠드되 부문 2등
2019 보스턴 발레단 입단



안성준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2015 시칠리아 국제발레콩쿠르 1위
2018 발렌티나 코즐로바 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3위
2018 페름 아라베스크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2위
2019 부산국제무용콩쿠르 2위
2019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심사위원상
2019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양준영

2017 YAGP 시니어 남자2등
2018 VAGANOVA ballet academy
280주년 갈라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
김선희 발레단 주역 무용수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00 - 14:00	초등6 - 중등2 클래스
14:00 - 17:30	개인 바리에이션
18:00 - 19:00	중등3 - 고등3 클래스
19:00 - 21:00	개인 바리에이션

